

大阪公演

2000年12月24日(日) 大阪国際交流センター大ホール

名古屋公演

2001年2月4日(日) 愛知県勤労会館

東京公演

2001年3月20日(火) 北とぴあ・さくらホール

<http://www.cast2.net/muyong/>

舞踊で綴る五千年の歴史、
幻想と夢の祭典

「袖の舞」、「朝天舞」、
「涙のアリラン」、「スルチマ」をはじめ、
8つの初演作品と歴史と共に踊りつがれた9作品、
全17作品を織り成す。

무용조곡

세월과 더불어

舞踊組曲～歲月～

出演：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各支部舞踊部 [東京・神奈川・西東京・東海・京都・大阪・兵庫・広島・山口・福岡]、歌劇団

主催：舞踊組曲「歲月」公演実行委員会

무용조곡

세월과 더불어

무용조곡 세우올 ~ 歲月 ~

격동의 20세기를 보내고 희망과 기대에 찬 21세기를 맞이한 역사적시기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무용전통을 자랑하는 무용조곡 《세월과 더불어》를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멀리 떠난 남의 나라에서 나서자란 제일조선무용가들과 애호가들, 그리고 새세대 학생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오직 한마음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이처럼 훌륭한 공연 무대를 펼치게 되었으니 저희들의 기쁨은 한량없습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민족문화의 재부인 조선무용의 진수를 깊은 감동속에 보여줄 것이며 21세기 제일동포사회에 민족의 넋과 긍지를 고스란히 이어가는 귀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내다 보게된 새로운 정황속에서 가지게 된 오늘의 이 공연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을 더 뜨겁게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의 공연이 제일동포들의 무용운동력사에 길이 빛날 한페이지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공연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방조와 협력을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激動の20世紀を送り、希望と期待を胸に抱きながら歴史的時期を迎えた今日、5000年の悠久なる歴史と燦然と輝く芸術の伝統、特に舞踊の伝統を誇る朝鮮民族、その伝統の一端を披露する行事として、舞踊組曲『歲月』を公演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遠く祖国を離れ異国の地に生まれ育った在日朝鮮舞踊家、舞踊愛好家、そして新しい世代である学生、生徒たちが、歳月の激流にありながらも、民族愛あふれる心を燃やししながら優れた舞台公演を繰り広げることは、私たちの限りない喜びでもあります。

この度の公演は、わが朝鮮民族文化の貴重な遺産である朝鮮舞踊の真髓を、深い感動をもって示すものであり、21世紀の在日同胞社会に民族の魂と誇りを受け継ぐ貴重な宝となることと確信しております。

特に6.15南北共同宣言の採択以来、祖国統一への明るい展望が目前に近づいて来た、新しい状況の中で開かれる今日のこの公演は、民族の永い間の念願である祖国統一への確信をより熱く抱かせてくれるものと思います。

今日の公演が、在日同胞の舞踊運動史に永く輝く1ページとなることを確信しながら、この公演の成功のために惜しみないご幫助とご協力をくださった皆様方に深甚なる謝意を表するものであります。

実行委員会名簿

金桂仙 金英玉 金在順 李利久 李修市
文祥介 裴洪武 裴洪宰 崔友群 (子母順)

아침의 나라 1 朝の国

소매웃춤 2 袖の舞

조천무 3 朝天舞

아막춤 4 牙拍の舞

강강수월래 5 カンガンスウォルレ 江江水越来

재방울춤 6 チェパンウルの舞

승무·살풀이 7 僧舞(大阪)・サルपुर리(名古屋・東京)

탈춤 8 タルチュム(仮面舞)

쓸치마춤 9 スルチマの舞

칼춤 10 劍舞

봄맞이 11 春のおとずれ

눈물의 아리랑 12 涙のアリラン

부채춤 13 扇の舞い(東京公演)

명절놀이 14 名節ノリ

손북춤 15 手鼓の踊り

장고춤 16 チャンゴ(長鼓)の舞

금수강산 내조국
온 세상에 자랑하세 17 永遠に栄えあれ

※公演地により多少演目が変わります。

With

演 개
目 소
목 紹
연 介

Introduction

1. 《아침의 나라》〈朝の国〉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던 우리 나라—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을 《봉선》과 《공후》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화폭으로 펼친다.

《봉선》은 봉황새 무늬가 그려진 부채이며 《공후》는 고조선시기로부터 전해진 민족현악기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산천을 황홀경의 춤으로 형상하였다.

いにしえより、《錦繡山河》とうたわれてきた我が祖国—朝鮮、秀麗な山河に誘われるかのように《鳳扇》と《箜篌(コンフ)》を持った女性たちの優雅で美しい舞がくりひろげられる。悠久なる5千年の歴史の幕が、いま上がろうとしている。

(箜篌とは、古朝鮮時代よりつたわった民族弦楽器のひとつである)

2. 《소매웃춤》〈袖の舞〉

옛음악지에 《고구려춤은 몸시 긴 소매를 늘어뜨리고 창창히 나란히 서서 춤춘다.》고 쓰여졌다. 《소매웃춤》은 고구려시기의 대표적인 무용으로서 소매 가진 웃웃을 입고 춤추는 군무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세운 《고구려 춤 무덤 벽화》에서 취재한 춤가락 표상들을 선택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리게 된다.

三国時代、高句麗は、巨大な領土と力をもっていた。高句麗の舞踊塚の壁画には力強く動的で、はつらつと踊る姿が描かれている。長いソメ(袖)の衣装をまとった舞踊家のいきいきとした姿は、朝鮮舞踊のルーツを物語っている。今回、初演の作品である。



朝の国



3. 《조천무》〈朝天舞〉

《조천무》란 아침의 맑은 하늘을 지킨다는 뜻으로써 고구려 녀인들의 로동의 근면성과 무술을 닦는 모습을 보여 주는 생활적무용이다.

12세기말 우리 나라 북부지대 여러곳에서 추어졌다는 이 무용은 외래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운 용감한 기개를 담고 있다. 함경남도 여흥 지방에서 발굴 정리된것을 이번에 우리의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다.

《朝天舞》は、美しい朝の国に住むひとびとは、勤勉で愛国心が強く、勇敢であるということをあらわした踊りである。12世紀末、外敵と戦ったわが国の北部地方のひとびとの中で踊られていた民俗舞踊である。今回の公演が初演になる。

4. 《아박춤》〈牙拍の舞〉

《아박》이란 상아로 만들어진 고유한 민족악기이다.

아박춤은 고구려시기의 《동동무》가 오랜 세월을 거쳐 변화 발전되면서 리조시기, 근로하는 인민뿐 아니라 궁중에서까지 크게 성행한 고전무용의 하나이다.

서정적이면서도 특유한 아박의 울림에 민족성이 짙은 춤가락으로 펼쳐 보이는 품위 있는 무용이다.

《牙拍》とは、象牙で作られた民族打楽器のひとつである。宮中舞踊—《トンドンの舞》から由来したといわれている李朝時代の舞である。叙情的で特有な牙拍の響きにあわせた優雅で美しい踊りに注目してほしい。



朝天舞



袖の舞



牙拍の舞

With Key

演 개 目 소 Introduction 목紹 연 介

5. 《강강수월래》〈江江水越来〉

《강강수월래》란 오랑캐들이 물을 건너 쳐들어 온다는 뜻이며 주위를 경계하라는 뜻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남해안지방의 부녀자들이 바다로 기여 드는 왜적의 무리를 감시하면서 부르던 노래에 왜적의 침입을 사전에 알고 아군에게 전하여 침략자를 격멸하는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춤가락을 붙인 륜무형식의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원형에 기초하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무대예술화하였다.

壬辰年(1592年)の戦い(秀吉の乱)の時、おもに南海岸地方の女性たちが踊った輪舞形式の踊りである。《カンガンスウォルレ》とは、侵略者たちが海のかなたからやってくるので周囲に気をつけるという意味である。今回は原形にもとづきながらも現代的にアレンジし、なおかつ芸術的作品にしあげた。

6. 《채방울춤》〈チェパンウルの舞〉

조선의 의식무용중에서도 종교무용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무당들은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며 집안의 무사태평과 행운을 비는듯 채방울을 흔들고 굿을 한다.

《신령》이 지상으로 내려와 교감을 하듯 뛰고 들며 몸 짓히는 악동적인 춤사위들이 오늘날까지 전하여 오면서 《사당패》(옛날의 배우)춤과 무당춤의 짙은 가락으로 오늘의 감정에 맞게 새로 창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공연하게 된다.

朝鮮の儀式舞踊のなかでもシャーマニズムは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る。巫女たちは鈴をもちいて無病息災と幸運を祈りながら踊る。躍動的で粋なこの作品は、今回の公演が日本初演となる。

7. 《승무》〈僧舞〉(大阪公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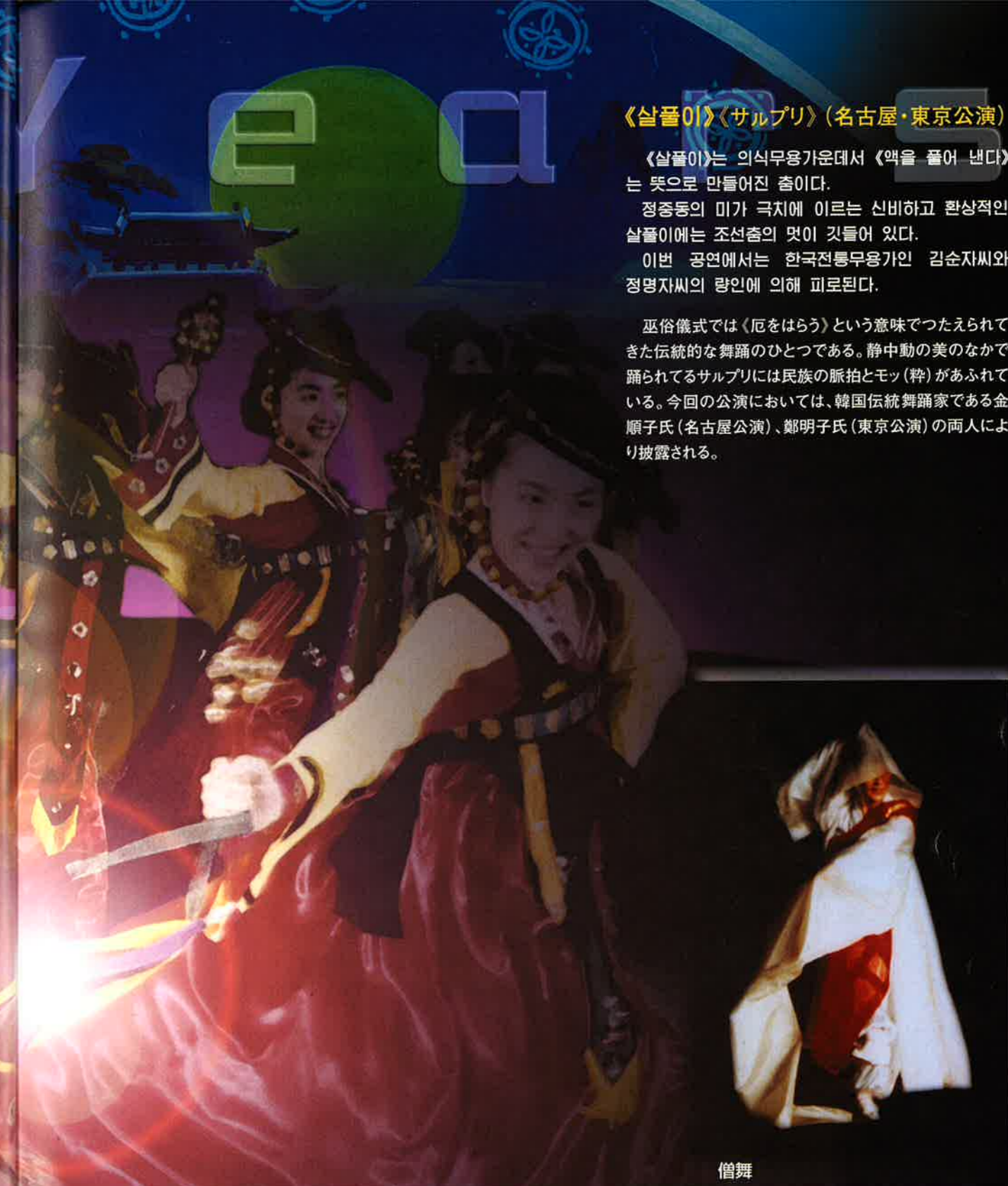
한국춤의 백미라 할수 있는 춤으로 한국춤을 집대성해 놓은 대표적인 춤의 하나이다.

승무의 춤사위는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완전한 예술형식을 갖춤으로써 춤으로서 표현할수 있는 미의 극치를 보여 준다.

승무의 유래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듯하며 근세중기 이후부터는 의식무 성격보다는 대중의 흥과 멋을 살린 민속춤으로 전승되어 왔다.

질량의 확대가 크며 공간구성이 아름다운 이 춤은 인간 내면을 철학의 경지로 승화시킨 춤이다.

仏教の儀式舞のなでも、法鼓舞から由来する舞踊であるといわれている。袖の長い袈裟をかぶりあらゆる煩惱や、人間の苦惱をふりはらおうとする姿、とくに、たてて吊るしてある太鼓を多様なチャンダン(リズム)でたたく時、民族舞踊の精髓を感じるであろう。韓国伝統舞踊家・鄭珉氏により披露される。



《살풀이》〈サルプリ〉(名古屋・東京公演)

《살풀이》는 의식무용가운데서 《액을 풀어 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춤이다.

정중동의 미가 극치에 이르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살풀이에는 조선춤의 맛이 깃들어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전통무용가인 김순자씨와 정명자씨의 랑인에 의해 피로된다.

巫俗儀式では《厄をはらう》という意味でつたえられてきた伝統的な舞踊のひとつである。静中動の美のなかで踊られてるサルプリには民族の脈拍とモツ(粋)があふれている。今回の公演においては、韓国伝統舞踊家である金順子氏(名古屋公演)、鄭明子氏(東京公演)の兩人により披露される。

僧舞



江江水越来



チェパンウルの舞

8.《탈춤》〈タルチュム (仮面舞)〉

민속적인 탈춤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작품은 황해도 봉산 탈놀이에 기초하여 만들었는데 봉건통치배들과 착취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아우와 조소가 춤가락에 질게 표현되었다.

民俗的なタル(仮面)の踊りには、民衆の生活や感情がにじみでている。この作品は、黄海道鳳山タルノリ(仮面遊び)にもとづいて作ったものである。封建時代の統治者や、搾取階級をあざ笑う爽快さがよく表現された創作舞踊である。

9.《슬치마춤》〈スルチマの舞〉

리조시기 우리 여성들은 봉건적인 풍습과 질곡에 의하여 제대로 바깥출입을 못하였다. 하늘수 없이 밖으로 나가거나 나뉘이를 갈 때 의례히 슬치마를 쓰며 거닐었다.

봉건적인 사회제도하에서도 랑만과 꿈을 가지고 곳곳이 이겨 내는 조선여성들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李朝の時代、女性たちは封建的な風習のため自由に外をであるけなかった。どうしても外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にかぶるのが、スル(かぶり)チマであった。封建的な社会制度のなかでもロマンと夢をいだきながらひたむきに生きた朝鮮女性の姿を舞踊化した情緒ゆたかな作品である。



タルチュム (仮面舞)



スルチマの舞

10.《칼춤》〈劍舞〉

칼춤은 지난시기 우리 인민들의 나라를 지키는 슬기와 용감성을 보여 주는 춤이다.

짧은 칼춤은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 받았으며 전 기신라때 유행되었던《황창무》의 영향과 수법을 전해 주는 독특한 무용이다. 전통적인 칼놀림과 세련된 춤은 세월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전하여 현대적 미감에 맞게 완성됨으로써 우리 무용가운데 하나의 자랑으로 되어 있다.

劍舞は高句麗の伝統をひきつぎ、新羅時代の〈黄昌郎舞〉の影響と手法をつたえてくれる独特な民族舞踊である。伝統的な剣の使い方や、踊りの動作を現代の美感により完成させたこの作品には祖国を愛し、守ろうとする民族の知恵と勇気があふれている。



劍舞

With the years

演 개
 目 소 Introduction
 목紹
 연 介

Introduction



春のおとずれ



11.《봄맞이》〈春のおとずれ〉

우리 인민은 근면하여 씨뿌리기를 비롯한 농사를 꾸준히 한 농경민족이다.

이 작품은 민속무용조곡 《계절의 노래》속의 무용작품으로서 농민들의 생활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은 혼성군무이다.

동해안 지방 민간에서 널리 추어 온 회양닐리리 춤을 발굴정리하여 새롭게 창작하였다.

わが民族は、勤勉な農耕民族である。《農事天下之大本》のはたしるしのもと種まきから収穫まで一生懸命働いてきた。この作品は、民俗舞踊組曲《季節の詩》のなかでも好評を博した群舞である。



涙のアリラン

12.《눈물의 아리랑》〈涙のアリラン〉

우리 인민은 민족수난의 쓰라린 슬픔과 한란을 아리랑의 노래에 담아서 불러 왔다. 정든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 휩싸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던 아리랑, 조선민요의 대표적작품인 아리랑속에서도 긴 아리랑에 민족의 비애와 분노를 담아 춤으로 형상하였다. 이 작품은 이번 공연을 위하여 새로 창작된 작품이다.

民族受難の悲しみと嘆きを、私たちはアリランにこめて歌ってきた。なつかしい故郷や祖国を想うかべるとき、心の底から響いてくるアリランのメロディー。朝鮮民謡の代表作のひとつであるアリラン、その中でも、〈キン(長い)アリラン〉の曲に民族の悲哀と憤り、そして明日への願いをこめてドラマティックに表現した新作である。

13.《부채춤》〈扇の舞〉(東京公演)

꽃과 잎을 상징한 부채춤가락을 통하여 광복의 새봄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행복을 고상하고 아름다운 춤으로써 민족적서정성이 풍부하게 만들어진 우리 나라 민속무용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優雅で叙情的な音楽、気高く、繊細な《扇の舞》は、芸術性の高い完成された朝鮮舞踊の代表作であり、民族舞踊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た作品である。



扇の舞

演 目 目 録 Introduction
개 소 紹 介 연 介

14.《명절놀이》《名節ノリ(遊び)》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명절이 오면《축》, 《북》이라는 등을 달아 매 놓고 손벽치기, 눈싸움, 제기차기, 춤 경쟁을 하며 즐겁게 놀곤 한다.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춤이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있는 어린이들의 전통무용의 하나이다.

昔からわが国では、名節に灯笼の灯りをともし、いろいろな民俗ノリ(遊戯)をたのしんできた。朝鮮各地で盛んに行われた、子供たちの伝統的な民俗ノリ舞踊である。

15.《손북춤》《手鼓の踊り》

이 무용은 황해도(연안, 배천) 지방농민들이 추어 온 농악놀이의 일종인 《들북춤》의 토속적인 춤가락을 발굴하여 새롭게 창작하였다.

높이 쌓아 놓은 벼남가리를 바라 보면서 환희에 넘친 우리 농민들의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흥겹고 락천적인 틀동으로 형상한 이 작품은 현대조선무용의 성과작으로 평가 되고 있다.

豊作にわく農村の村一晴れた秋の日に、高く積み上げた稲穂を満足げに見上げる農民たちの喜びと幸せを手鼓のリズムにのせて楽しく踊った作品である。この作品は、現代朝鮮舞踊の中でもっとも完成された舞踊作品であると評価されている。

16.《장고춤》《창고(長鼓)의 춤》

고조선시기부터 장고는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된 타악기이다.

민간에서 뿐아니라 궁중에서까지 보급된 장고는 연주가 뿐아니라 무용가들에 의하여 그 흥취가 더 더욱 돋구어 졌다. 때문에 《장고춤》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으며 이번 공연 무대에 펼쳐 질 《장고춤》은 흥취 있고 박력 있는 장고가락의 춤사위로 하여 더욱 아름답게 장식될 것이다.

民俗楽器である창고를たたきながら踊る창고의舞は、民族色豊かな朝鮮の代表的な民俗舞踊である。

粋で、華麗で、リズムカルな창고にあわせた迫力ある踊りには、朝鮮民族の魂がこめられている。

17.《금수강산 내조국 온 세상에 자랑하세》 《永遠に栄えあれ》

삼천리금수강산 우리 조국—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기어이 이룩될것이다. 온 겨레가 열싸 안고 춤바다를 펼칠 감격의 상봉, 그날 위해 하나로 이어 저 맥박치는 통일의 마음을 거침없이 담은 춤이다. 통일의 춤, 희망의 춤 추고 또 춤니다.

三千里繚の山河とうたわれる、美しきわが祖国—民族の悲願である祖国の統一は、必ずや成し遂げるであろう。

統一の日、互いに手を取り、抱き合っ、感激の涙をながすその日のために、いぢずな心をつないでいく思いをこめた新作である。



名節ノリ(遊び)



창고(長鼓)의 춤



手鼓の踊り



永遠に栄えあれ



김해춘
金海春(キム・ヘチュン)
共和国人民藝術家

1939年 5月25日 咸鏡北道会寧郡に生まれる。
1963年、平壤芸術大学朝鮮舞踊学部を卒業後、国立舞踊劇場俳優として配属される。
1969年、国立歌舞団にて俳優生活を送る。
1971年、平壤モランボン芸術団の按舞家。
1978年、ピバダ歌劇団の按舞家。
1981年、共和国功勳藝術家の称号を授与さる。
1991年、共和国人民藝術家の称号を授与さる。
1996年よりマンスデ芸術団の按舞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舞踊組曲《季節の詩》、舞踊劇《鳳仙花》をはじめ《手鼓の踊り》、《春のおとずれ》、《チェンガンの舞》、《スルチマの舞》、《ソメ(袖)の舞》、《牙拍の舞》など60余作品を創作。



백환영
白煥榮(ベク・ファンヨン)
共和国人民藝術家

1935年12月29日 開城市に生まれる。
1956年、平壤舞踊学校(現:平壤音楽舞踊大学)を卒業後、国立古典芸術劇場の俳優として配属される。
1966年、国立歌舞団にて按舞家活動をはじめめる。
1982年、平壤音楽舞踊大学にて按舞演出の講座長をつとめる。
1988年、ピバダ歌劇団の按舞家。
1990年より国立民族芸術団の民俗舞踊責任按舞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1992年、共和国人民藝術家の称号を授与さる。
群舞《剣舞》、《人形の踊り》、《平壤城の人々》、《鳳仙花》、《楽しいセナブの音》をはじめ数多い作品を手がける。



엄영춘
嚴英春(ウム・ヨンチュン)
共和国人民俳優

1937年10月18日 平安南道南浦市に生まれる。
1957年、平壤綜合芸術大学を卒業後、国立古典芸術劇場の俳優として配属される。
1960年、国立舞踊劇場で舞踊俳優として活躍。
1963年、国立民族芸術劇場の按舞家をつとめる。
1971年、ピバダ歌劇団の按舞家。

1978年、共和国功勳俳優の称号を授与さる。
1982年、共和国人民俳優の称号を授与さる。
1986年より国立民族芸術団の按舞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第八回世界青年学生祝典にて独舞部門銀賞に輝く。
主な創作作品に《箕の舞》、群舞《ヤンサンド》、《チャンゴの踊り》等60余の作品を創作。



백은수
白恩秀(ベク・ウンス)
共和国功勳藝術家

1943年 2月13日 中国吉林市に生まれる。
1945年、帰国
1963年、平壤芸術大学舞踊学部を卒業後、国立舞踊劇場の舞踊俳優として配属される。
1969年、国立歌舞団にて舞踊俳優。
1971年、国立マンスデ芸術団舞踊俳優
1973年、国立マンスデ芸術団来日公演に出演。
1977年、ピバダ歌劇団で俳優舞踊指導員として活躍。
1985年、朝鮮芸術交流協会舞踊指導員をつとめる。
1991年、国立民族芸術団で舞踊指導員をつとめる。
1996年より国立民族芸術団で按舞家として創作活動を開始し現在にいたる。
1997年、共和国功勳藝術家の称号を授与さる。
舞踊劇《赤い旗》の主人公をはじめ朝鮮舞踊四大名作に出演、独舞《太鼓の舞》、《トラジ》等数多くの作品に出演。
第九回世界青年学生祝典の舞踊部門で金賞を受賞。
群舞《山河歌》《双拔太鼓の舞》《高句麗の娘》《平鼓の舞》等多くの作品を手がける。



김영길
金永吉(キム・ヨンギル)
共和国功勳俳優

1941年 1月20日 平壤市中区域に生まれる。
1963年、平壤芸術大学民族舞踊学部を卒業後、国立舞踊劇場の俳優として配属される。
1965年、国立歌舞団で舞踊俳優として活躍。
1972年、平壤モランボン芸術団で舞踊俳優として活躍。
1976年、モランボン芸術団で舞踊指導員をつとめる。
1982年、共和国功勳俳優の称号を授与さる。
1988年、ピバダ歌劇団、国立民族芸術団で舞踊指導員をつとめる。
1989年、ワンジェサン軽音楽団で按舞指導をする。
1992年、朝鮮舞踊家同盟 民族舞踊分課委員長をつとめる。
1994年より国立民族芸術団の按舞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박무준
朴武駿(パク・ムジュン)
共和国人民藝術家

1942年 7月17日 京畿道ソウル市に生まれる。
1967年、金日成綜合大学物理学部を卒業。作曲の才能を認められ中央放送委員会の作曲家として配属される。
1977年、共和国功勳藝術家の称号を授与さる。
1978年、ピバダ歌劇団、マンスデ芸術団で作曲家として活躍。
1991年、共和国人民藝術家の称号を授与さる。
1999年より国家作品審議委員会審議委員として現在にいたる。
《母なる祖国を私は愛す》、《首都の夜》など100余の歌謡曲、《月見》、《慶祝の夜》他、10余の舞踊曲を創作する。



강기창
康基昌(カン・ギチャン)
共和国人民藝術家

1934年 3月21日 平安北道寧辺郡に生まれる。
1955年、平壤音楽大学作曲学部を卒業後、国立芸術劇場のオーケストラに配属される。以後、朝鮮音楽家同盟、ピバダ歌劇団作曲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1978年、共和国功勳藝術家称号を授与さる。
1992年、共和国人民藝術家称号を授与さる。
舞踊曲《チェパンウルの舞》、《高地の夜》、《抗争》、新民謡《モランボン》、交響曲《花を売る乙女》(キム・ヨンギョウ合作)をはじめ歌劇、音楽舞踊叙事詩等の主要作品を手がける。



신영철
申英澈(シン・ヨンチョル)
共和国人民藝術家

1927年 1月23日 江原道安辺郡に生まれる。
1943年、元山商業学校を卒業後江原道高山郡人民学校で教鞭をとる。
1947年、ソウル交響楽団でコントラバス奏者として演奏に励むかわら作曲法を習う。
1950年、国立芸術劇場交響楽団でアーティストとして活躍する。
1953年、国立民族歌劇劇場オーケストラで演奏活動を行う。
1965年、朝鮮音楽家同盟専任作曲家として本格的に作曲活動をはじめめる。以後江原道芸術団、ピバダ歌劇団を経て現

在、国立民族芸術団で作曲家として活躍している。
1982年、平壤音楽舞踊大学作曲学部卒業。
1989年、共和国人民藝術家の称号を授与さる。
1986年、国立民族芸術団で作曲家として活躍し現在にいたる。

民族歌劇《春香伝》、《沈清伝》、《朴氏夫人伝》をはじめ多くの歌劇、大音楽舞踊叙事詩の作曲を担当した。代表的な作品に舞踊曲《金剛仙女の舞》、《鳳仙舞》、《海の宝》、《牙拍の舞》、《チャンゴの舞》、《高句麗の舞姫たち》他数多くの作品を手がける。



정세룡
鄭世龍(チョン・セリョン)
共和国功勳藝術家

1930年 2月23日 咸鏡北道金策市に生まれる。
1966年、平壤音楽舞踊大学作曲学部を卒業後、国立歌舞団作曲家として配属される。
1969年、国立交響楽団専任作曲家。
1970年、映画音楽団作曲家。
1971年、ピバダ歌劇団作曲家。
1975年、共和国功勳藝術家称号を授与さる。
1986年、舞台芸術創作社作曲家。
歌謡曲《祖国のつつじ》、《早春》、民謡曲《機を織る乙女》、《モランボンの春》、民族器楽曲《慶祝》をはじめ数多くの作品を創作する。



김경민
金敬民(キム・キョンミン)

1960年 9月17日 平壤市中区域に生まれる。
1984年、平壤音楽舞踊大学作曲学部を卒業後、ピバダ歌劇団専任作曲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民俗舞踊組曲《季節の詩》より《春のおとずれ》を作曲し数多くの歌謡曲の編曲をこなす。



리석
李錫(リ・ソク)
共和国功勳藝術家

1928年12月 4日 全羅北道益山郡に生まれる。
1945年よりソウル音楽大学でバイオリンを学びのちにソウ

ル交響楽団で演奏活動をはじめ。1952年、国立舞踊劇場管弦楽団でコンサートマスターをつとめる。以後、同管弦楽団で作曲、指揮者を歴任。1966年、朝鮮音楽家同盟中央委員会専任作曲家、映画音楽団、ピバダ歌劇団作曲家を歴任。1976年、共和国功勳芸術家称号を授与さる。1996年、永眠。

舞踊曲《劍舞》、《巫女の舞》、《寺堂の舞》、《平和の鳩》、《幸福のうた》、《手鼓の踊り》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舞踊作品と映画音楽、歌謡曲などを手がける。



한철
韓鉄(ハン・チョル)
共和国功勳芸術家

1949年12月24日 平壤市東大院区域に生まれる。1968年、平壤音楽舞踊大学民族器楽学部を卒業後、2・8映画撮影所オーケストラにカヤグム(伽椰琴)奏者として配属される。1970年、ピバダ歌劇団で演奏活動をする。1982年、ピバダ歌劇団で作曲家として活動をはじめ。1986年、国立交響楽団専任作曲家。1988年より国立民族芸術団専任作曲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1995年、共和国功勳芸術家の称号を授与さる。

伽椰琴協奏曲《オンヘヤ》をはじめ、30余の器楽曲、《我らの錦繡江山》など80余の舞踊曲、他10余の歌謡曲を作曲。



김학영
金学永(キム・ハギョン)

1968年10月29日 平壤市大城区域に生まれる。1988年、平壤芸術学院アコーディオン科を卒業後、当学院教員に配属される。1990年より国立マンスデ芸術団作曲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金日成綜合大学校歌》をはじめ歌謡曲《燃える心》、《母の叫び》、舞踊曲《月光の下に》など数多くの作品を手がける。



한루영
韓樓永(ハン・ルヨン)

1949年5月23日 京畿道ソウル市に生まれる。

1974年、平壤音楽舞踊大学作曲学部を卒業後、作曲家として中央放送芸術団に配属される。1978年、朝鮮音楽家同盟中央委員会の作曲家として活動する。1982年、ピバダ歌劇団で作曲活動をする。1985年、国立交響楽団専任作曲家。1986年よりピバダ歌劇団専任作曲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代表作品には、民俗舞踊組曲《四季のうた》より《仮面舞》、《海辺で》、《農楽》をはじめ、《拍の舞》など多くの舞踊曲、歌謡曲を創作する。



김향
金響(キム・ヒャン)
芸術学 学士

1956年3月16日 東京都墨田区に生まれる。1961年、帰国。1980年、平壤音楽舞踊大学民族器楽学部を卒業後、ヘグム奏者としてピバダ歌劇団に配属される。1984年よりピバダ歌劇団専任作曲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

室内楽曲集、洋琴曲集、器楽独奏曲集などを執筆。代表作品には、民俗舞踊組曲《四季のうた》より《シルムの踊り》、《ブランコにのる乙女》をはじめ、《夕日さす浜辺》など多くの舞踊曲、歌謡曲を作曲する。



황룡수
黄龍水(ファン・リョンス)
共和国人民芸術家

1938年2月15日 江原道高城郡に生まれる。1958年、平壤演劇映画大学舞台美術学部を卒業後国立舞踊劇場に配属される。1965年、国立歌舞団で活動。1971年よりピバダ歌劇団美術家として現在にいたる。1971年、共和国功勳芸術家称号を授与さる。1972年、共和国労力英雄称号を授与さる。1979年、共和国人民芸術家称号を授与さる。1992年、金日成賞を授与さる。

革命歌劇《ピバダ》、《花売る乙女》、《密林よかたれ》、《金剛山のうた》、革命演劇《三人一党》、《慶祝大会》、《血分亡国会》、大音楽舞踊叙事詩《栄光のうた》、《幸福の歌》をはじめ舞踊公演、アンサンブル公演などの数多い舞台美術を創作した。

출연자명단 / 出演者名簿

文芸同東京支部

高定淳	金利恵	金善恵	金秀蘭	金香美
金和美	桂栄順	李奈美	李玲華	李明香
李美蓮	李静花	文暎淑	朴琴喜	白明姬
孫弘美	河昌美	安朋美	尹恵瑛	任恵良
元貞蘭				

文芸同西東京支部

梁厚子	柳琴姬	柳絢子	李京姬	林景美
方香織	孫和淑	張慧純	鄭眞	洪須美

文芸同神奈川支部

姜明里	金良枝	金志玲	金玉寿	朴甲仙
朴京愛	朴里美	朴敏玉	裴福先	白華美
申春淑	安弘美	吳尚姬	張愛琳	鄭鈴
俞景姬	河愛順			

文芸同東海支部

姜美蘭	姜正淑	金光子	金美和	金成姬
金淳愛	金貞子	金珠英	金智恵	金靖子
金夏子	金華順	陸美華	李美順	李峯礼
李寿美	李愛子	李崇華	李晴美	李恵映
文麻美	朴明恵	朴暎希	徐琴実	宋福美
安清美	吳錦	吳美和	尹奈梨	尹麻由
尹美蘭	尹美成	尹淳華	鄭悠衣	趙一南
崔尚美	崔英珠	許淑禮	洪英淑	黄香順



출연자명단 / 出演者名簿

文芸同京都支部

金秀蓮	金利恵	李文清	李未幸	李宗叡
李玉敏	林美紀	朴春蘭	卞梨花	申美華
吳美喜	全梨花	鄭南淑	鄭愛順	鄭千香
崔英順	黃昌詔	黃香淑		

文芸同大阪支部

姜嘉那	高久美	高直美	金里美	金純恵
金英美	金愛理	金由美	金貞秋	金紅瑛
梁公美	梁利奈	梁貞玉	梁春美	李南景
李麗和	李愛和	林昇玉	文貞美	朴末子
朴美子	朴順姫	朴志鮮	宋民恵	宋英愛
田慶香	田吟室	田富美	鄭里華	鄭美華
曹富士子	任敬玉	任秀香	吳聖姫	吳英子
韓純愛	玄明順	姜大士	金辰浩	金皓一
李龍博	李勝浩	朴正士	全信基	崔德寿
洪宗秀				

文芸同兵庫支部

姜民愛	康祐子	金京愛	金仙玉	金順寛
金智華	金幸淑	盧知蓮	李貴和	李明福
李美恵	李智玲	文由美	朴葵玉	朴裕美
朴智愛	朴智子	朴和美	徐絃雅	張玲實
鄭由美	秦京愛	黃文嬉	黃和美	

文芸同福岡支部

金由梨	金愛順	権明子	李美蓮	李順和
文貞恵	文香蘭	朴慶和	朴環奈	裴梨香
裴英恵	張愛順			

(子母順)

ゲスト紹介



정민 鄭珉

(チョン・ミン)

1928年12月1日生まれ

韓国舞踊協会設立及び第1期理事長(故)金海郎舞踊学院の第1期生として学びその後、同学院の教師として活躍する。

伝統舞踊の先祖金愛貞女史に、古典僧舞と太鼓を学ぶ韓国音楽界の先祖、林芳ウル先生に唱師事。

英国ロイヤルバレエ学校ブライアン・ショウ先生に古典バレエ師事。

世紀の舞姫アレキサンダ・ダニエロワ先生に名作バレエ師事。

伝統舞踊の先祖(故)丁錦玉先生に、(故)金初香流(1830-1895・平壤舞技の師匠)、サルプリ、立舞、僧舞、太鼓師事。

芸術専門学校講師、韓国芸術学院長



김순자 金順子

(キム・スンジャ)

韓国慶尚道出身の両親の3女として、1945年2月に宮城県にて出生の在日2世。

18歳より本格的に韓国文化芸術に取り組み、様々な苦難を乗り越えつつ本国の多くの人間文化財に師事し、舞踊のみならず伽倻琴やタルチュムなど幅広く取り組んでいる。

今日まで在日同胞社会における文化活動に身を惜しむことなく献身し、多大な貢献を成し遂げて来た。日本社会においても全国を奔走しながら、韓国伝統芸術の紹介と普及を行っている。

海外においても数々の公演発表を重ね、在日舞踊家として本国でその実力を認められている。

この他、国内外においてテレビ、ラジオや新聞、雑誌にも多く掲載され、特に福祉施設での慰問活動、日本社会における韓日親善のための文化交流にも永年わたって貢献を続けている。

また、本年3月4日に、題して“天使の舞”金順子ドキュメントドラマ30分が韓国で放映された。

社団法人 韓国音楽協会日本関東支部長

韓国無形文化財第92号太平舞保存会日本東京支部長

太平舞履修者
在日韓国人文化芸術協会副会長
金順子韓国伝統芸術院代表



정명자 鄭明子

(チョン・ミョンジャ)

ソウルに生まれる。6歳から踊りを始め伝統舞踊や音楽の人間文化財、杖鼓(チャンゴ)の名人等多数の先生に師事する。

5000年の歴史を誇る韓民族の持つ伝統舞踊の継承及び発展につとめ、鄭明子韓国舞踊研究所を設立し、公演活動とともに韓国舞踊の普及と後輩の育成に努めている。

1994年ソウルで開催された全国パンソリ大賞名唱大会での総合優勝賞国務総理賞、1995年ソウル特別名誉市民賞の受賞をはじめ数々の賞を受ける。

毎年リサイタルを開催する他、全国における音楽祭、フェスティバル、自治体の自主事業に招待出演する一方、世界のアーティストとのセッションに意欲的に参加、その活動は舞踊にとどまらず映画、演劇、テレビをはじめ講演会やカルチャセンターの講師として指導にあたる等多彩であり、その活動は日本・韓国にとどまらず海外にまで及んでいる。

●経歴

ソウル国立国楽高等学校卒業
東京工芸大学卒業
社団法人韓国民俗芸術研究院民俗舞委員兼日本関東支部長
韓国舞踊教育会理事兼日本関東支部長
学校法人東海学院教育研究所韓国舞踊研究室主任研究員
よみうり文化センター横浜・鄭明子韓国舞踊講師
在日韓国人文化芸術協会 副会長
在日舞踊協会 副会長
韓国ソウルMBC(TV)アカデミー韓国舞踊専任教師
韓国ソウルセッドン子ども合唱団 理事兼顧問委員
鄭明子韓国舞踊芸術院 代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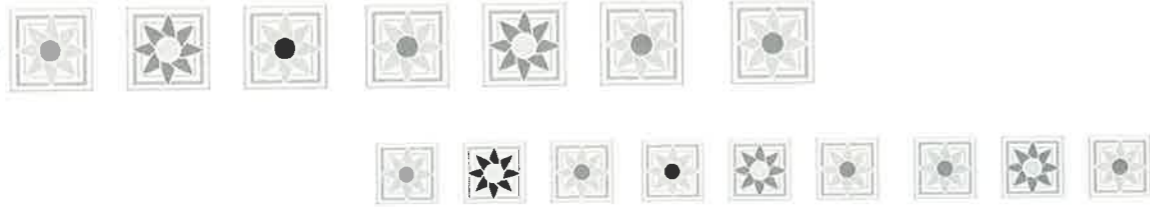
●師事

準人間文化財 丁明淑、人間文化財 李東安
人間文化財 李梅芳
人間文化財 金淑子、人間文化財 朴秉千
杖鼓名人 全士燮
名舞人 金振傑





贊助出演學校紹介



◇朝鮮大学校舞踊部



◇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舞踊部



◇西東京朝鮮第一初中級学校中級部舞踊部



◇西東京朝鮮第二初中級学校中級部舞踊部



◇神奈川朝鮮初中高級学校中級部舞踊部



◇川崎朝鮮初中級学校中級部舞踊部



◇愛知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舞踊部



◇愛知朝鮮中高級学校中級部舞踊部



◇大阪朝鮮高級学校舞踊部



◇京都朝鮮中高級学校中級部舞踊部



◇滋賀朝鮮初中級学校中級部舞踊部



◇尼崎朝鮮初中級学校中級部舞踊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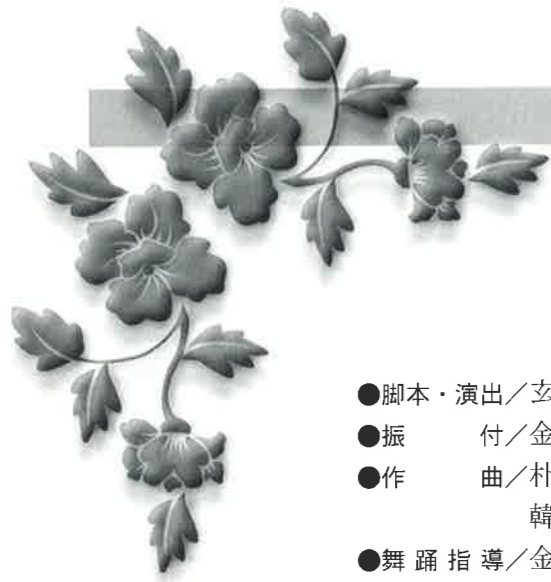


◇神戸朝鮮初中級学校中級部舞踊部



◇西播朝鮮初中級学校中級部舞踊部





スタッフ

- 脚本・演出／玄佳宏
- 振付／金海春 白煥榮 嚴英春 白恩秀 金永吉
- 作曲／朴武駿 申英澈 康基昌 鄭世龍 李錫
- 韓鉄 韓樓永 金響 金敬民 金學永
- 舞踊指導／金香順 姜秀奈 高定淳 白明姬 李先玉
- 孫和淑 洪一順 金映心 朴秀子 吳尚姬
- 朴甲仙 金靖子 黃香順 尹麻由 金貞子
- 李愛子 朴春蘭 全梨花 權日善 黃壽惠
- 李文清 姜酉先 韓純愛 李松榮 金利枝
- 鄭美華 曹富士子 宋英愛 宋正愛 金仙玉
- 徐絃雅 黃和美 池順姬 辛裕實 趙香實
- 李順和
- 照明／吳光雨
- 舞台美術／黃龍水
- 衣裳・小道具／金龍
- 宣傳美術・web担当／朴容道
- 写真撮影／金日泰
- 舞台監督／金宰鉉
- 中央事務局／朴貞順 安德姬 金有悅 卞秋子 金南順
- 李惠仁 鄭南淑 任秀香 金京愛 周黃順
- 地方事務局／東京：金善惠 桂榮順
- 神奈川：姜青 金有義 尹守枝 孫啓順
- 陳福貴 黃松美
- 西東京：李京姬 方香織
- 東海：許玉禮 李峯礼
- 京都：李玉敏
- 大阪：李香淑 高佳惠 宋民惠 金純愛
- 文貞美 梁貞玉 高久美 田吟室
- 梁利奈
- 兵庫：李智玲 金幸淑 朴智愛 張玲實
- 李貴志
- 福岡：柳桂潤
- 企画・構成／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 舞踊部
- 協力／金剛山歌劇団
- プログラムデザイン／許相浩 鄭聖華
- 印刷／(株)朝鮮新報社

<http://www.cast2.net/muyong/>

조선민속무용기본동작 참고자료

朝鮮民俗舞踊參考資料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인민으로서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민속예술을 창조하고 계승 발전시켜 왔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민속예술 가운데서 민속무용은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민속무용은 오랜 세월을 걸쳐 우리 인민들이 창조하고 추어 온 인민창작무용으로서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생활과 풍습, 민족적 정서와 재능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 시대에 민속무용을 발굴하여 개화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아직까지 파묻혀 있거나 정리되지 못한 민속무용들을 발굴수집하여 우리 식으로 정리하고 완성시켜 놓는것이다.

우리 나라 여러 지방에서 추어 저 온 민속무용들을 정리체계화하여 묶어 놓은 《조선민속무용 기본》은 민족적색채가 진하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고유한 춤가락들을 민족장단에 태워 발전 풍부화한 기본으로서 새 세대 무용가들과 학생들이 민족무용의 맛과 멋을 체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여기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1. 《한삼춤기본》

《한삼춤》은 우리 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추어져 온 고유한 민속무용의 하나이다.

《한삼춤》은 우리 인민의 민족의상에서 특징적인 한삼을 리용하여 추는 춤을 말한다.

한삼이란 두루마기나 저고리같은 옷의 소매끝에 손이 보이지 않도록 길게 덧댄 소매를 말한다.

《한삼춤》은 고구려시기부터 널리 추어져 온 긴소매옷춤이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 점차 한삼으로 변화되어 다양하게 추어 진 민속무용이다.

조선춤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맞게 한삼을 부드러우면서도 활기있게 쓰면서 추는 춤 동작들은 민족적정서를 두드러지게 할뿐아니라 아름다운 물동성과 조형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한삼춤기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한삼춤가락들을 발굴정리하고 그것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기본동작으로 체계화하였다.

『汗衫(한삼)의舞』は、朝鮮半島で古く踊られてきた、伝統的な民俗舞踊であり、『ハンサム』を小道具として使う舞である。

『ハンサム』とは、朝鮮民族衣装であるトゥルマギヤチョゴリの袖口から手を隠すために下げ

る白い布のことである。

『汗衫(한삼)의舞』は、高句麗の時代から『キンソメオツ(長袖)の舞』として広まりながら、歴史的に『汗衫(한삼)의舞』と、変化していった。

優雅で柔和な朝鮮舞踊の特色をいかした『汗衫(한삼)의舞』の動作は、うつくしい律動性と造形美から民族的情緒を豊かに表現する。現在、伝統的な『汗衫(한삼)의舞』の動作を7種類の基本動作に整理している。

2. 《수건춤기본》

《수건춤》은 수건을 소도구로 하여 추는 춤을 말한다.

《수건춤》은 로동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물동창조에 편리하고 간편한 수건을 리용함으로써 오래전부터 인민들속에서 널리 추어 졌다.

오늘 수건이 무용소도구로써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리용되는데 따라 수건춤동작들은 다양한 양상의 무용작품에 적극 리용되고 있다.

수건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짧은 수건, 긴 수건이 있다.

짧은 수건:질감—문장직 너비—50cm정도 길이—1m정도

색갈—연록색, 흰색 등

긴 수건 : 질감—문장직 너비—50cm정도
길이—1m 50cm정도
색갈—붉은 색 혹은 흰색, 노란
색.
주로 짧은 수건춤을 기본으로 한
다.

『スゴンの踊り』は、『スゴン(手拭い)』を小
道具にして踊る舞踊である。

舞踊小道具としての『スゴン』は、長短の2種
類があり、主に短い『スゴン』がよく使われ、
朝鮮舞踊作品においても多種多様に利用されて
いる。

『スゴンチュム』の基本動作は現在、3種類に
整理されている。

3. 《칼춤기본》

《칼춤》은 우리 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특색 있는 춤이다.

칼은 본래 무장수단의 하나로서 사람들은 그
것을 만들어 쓸 때부터 손에 익히기 위한 동작
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검술훈련과 결부되어 생겨난 《칼춤》
은 인간이 무장수단으로써 칼을 만들어 리용한
역사와 같이 오랜 무용이다.

칼날과 손잡이가 따로 연결되어 절랑절랑 소
리를 내게 되어 있으며 손목으로 칼을 앞뒤 옆

으로 휘둘리면서 추는 꺾어진 칼춤형식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무용이다.

《칼춤》은 그 내용이 전투적이다.

높은 기술이 있어야만 출수 있는 기교동작이
풍부한 춤이다.

고구려의 전투적인 칼춤전통을 이어 받았으
며 전기신라 때 유행되었던 《황창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

《칼춤》은 다른 민속놀이들과 배합되어 인민
들속에서 널리 추어졌는데 함경남도 단천을 비
롯한 동해안지방에서 많이 추어졌다.

칼의 종류는 짧은 칼, 긴 칼로 나누는데 짧은
칼을 기본으로 한다.

『劍の舞(カルチュム)』は、高句麗の時代か
ら伝えられた朝鮮伝統舞踊のひとつである。

実存した劍術の動作からつくられた『劍の舞
(カルチュム)』は、朝鮮舞踊の中でもながい歴
史を持つ舞踊である。

刃を動かすたびに「カシャンカシャン」と音
を響かしながら踊る短い『劍の舞(カルチュム)』
は、朝鮮民族舞踊独特のものであり、高度な技
術を用する舞踊である。

高句麗の時代から踊られた『劍の舞(カルチュ
ム)』は、新羅前期に流行した『黄昌舞(ファン
チャンム)』の影響をうけ、その後咸鏡南道をは
じめとする東海岸地方で広く踊られた。

短劍と長劍の2種類があるが、基本的に短劍
を使う。

『劍の舞(カルチュム)』の基本動作は、5種

類に整理されている。

4. 《부채춤기본》

《부채춤》은 접이부채를 들고 추는 민속무용
이다.

이 춤의 유래는 인민들의 생활적인 소도구인
부채의 사용과 결부되어 있다.

부채를 들고 추는 춤은 이미 고구려시기에
있었다.

《부채춤》은 남자들이 출 때에는 시원스럽고
호탕하며 녀자들이 출 때에는 고상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다.

《부채춤》은 우아하고 점잖은것을 좋아하는
조선사람들의 비위와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하여 우리 나라 민속무용에서 매우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한다.

『扇(プチェ)の舞』は、日常生活に使われて
いた扇子を小道具として踊られた高句麗時代か
らの舞踊であり、男性が踊ると爽快かつ豪快で
あり、女性が踊ると高尚かつ優雅な味わいがある。

優雅と気品を好む朝鮮民族の嗜好と情緒を反
映している『扇(プチェ)の舞』は、民族舞踊
の中でも愛されて来た舞踊である。

現在、『扇(プチェ)の舞』の基本動作は、4
種類に整理されている。

5. 《넉두리춤기본》

《넉두리춤》은 함경남도 단천과 북청지방 등
지에서 많이 추어진 민속무용이다.

이 지방에서는 봄씨불임과 가을걷이가 끝났
을 때 또는 명절이나 휴식의 한때에 마을사람
들이 모여서 군중적으로 즐겁게 춤을 추었다.

《넉두리춤》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의 근면한
로동생활과 낙천적인 성격이 결부되어 발생발
전해 온 민속무용이다.

이 춤은 환희적이면서도 막춤적인 성격이 강
하기때문에 다른 놀이에 이 춤이 끼여 들기만
하면 춤추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의 흥을 더
욱 돋구어주며 놀이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준다.

現在、4種類の基本動作をもつ『ノットウリ
の踊り』は、咸鏡南道タンチョンとプッチョン
地方で踊られた民俗舞踊である。

春季の種まきや秋季の収穫を終えた時、祝祭
日や休息のひとつに村の人々が集い楽しく
踊ったものである。

『ノットウリの踊り』は、朝鮮民族の勤勉な労
働生活と楽天的な性格を反映しつつ、発展して
きた民俗舞踊である。

興に酔いしれながら喜びの感情を即興的に表
す『ノットウリの踊り』は、踊り手にも観客に
も興をそえ、場をもりあげる楽しい舞踊である。

6. 《돈돌라리기본》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북청군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일대에서 널리 추어 진 민속무용이다.

이 춤은 우리 나라 동해안지방의 특색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민속무용의 하나로서 지난날에 명절이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 큰 원을 짓고 돌아가면서 그 지방의 민요《돈돌라리》를 부르며 군중적으로 추어 오던 전통적인 룬무형식의 춤이다.

지난날 이 지방의 여성들은 따스한 봄날이 오면 남대천의 강가나 속후의 모래산에서 달래를 캐다가 한낮이 되면 한데 모여 휴식하면서 달래춤을 추곤하였다. 이 춤은 북청지방의 민요인 《돈돌라리》에 맞추어 추어 왔기 때문에 그 후부터 《돈돌라리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널리 퍼지면서 특색 있는 민속무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춤은 추석날, 정월 보름날을 비롯한 명절날과 그 밖의 이리저러한 놀이가 있을 때마다 추어 지곤하였다.

『톤돌라리』는,咸鏡南道プッチョン地方を中心とするその周辺地帯で広く踊られた民俗舞踊である。

朝鮮半島東海岸地方の特色を帯びたこの舞踊は、祝祭日や楽しい集いの場で民謡「トンドルラリ」を唄いながら踊る輪舞形式の伝統舞踊である。

昔、うららかな春の日に「タルレ(姫菰)」をつみにいった農村の女性たちが昼下がりに踊っ

ていた「タルレチュム」が由来である。

現在、『トンドルラリ』の基本動作は、5種類に整理されている。

7. 《삼동동 어깨춤기본》

《삼동동 어깨춤》은 평안남도 성천지방 농민들이 가을걷이를 끝내고 풍년의 기쁨과 함께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즐겨 추어 온 민속무용의 하나이다.

손목, 팔굽, 어깨의 세매듭을 차례로 놀리며 추는 춤으로서 룬동이 흥겹고 절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サムドンドンオッケチュム』は、平安南道ソynchon地方の農民たちが秋の収穫後に豊年を喜び、五穀豊穰を祈願しながら踊られた民俗舞踊である。

『サムドンドンオッケチュム』の「サム」は、数字の3であり、「オッケ」は、肩を意味するように、手首、ひじ、肩の3ヶ所を順に使い節目をはっきりさせながら踊るこの舞踊の楽しい律動感、他の舞踊には見られない特徴である。

現在、『サムドンドンオッケチュム基本』は、3種類に区分されている。

8. 《고창춤기본》

《고창춤》은 개성지방의 장풍일대에서 추어 진 춤이다.

원래 량반계급들을 조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극적내용은 없어 지고 고유한 춤가락만 전해 지고 있다.

《고창춤》에서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가 내미는 동작과 손바닥을 엮었다 짓히며 뿌리치는 동작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동작들은 량반계급들을 보기 싫다고 하며 물러가라는 뜻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이 춤은 춤가락의 룬동성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코찬츄ム』は、開城地方のチャンプン一帯で踊られた舞踊である。

元来、両班階級(高麗、李朝時代の特権階級)を嘲笑する内容であったが今日では固有な動作だけが伝えられている。

手のひらで顔を隠す動作と手の甲とひらを交互に返しては振り払う動作が基本となっており、独特なリズムとはつらつとした動作が特徴である。

現在、『코찬츄ム』の基本動作は、6種類に整理されている。

9. 《장고춤기본》

《장고춤》은 우리 나라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이다.

《장고춤》은 장고가 널리 사용되었을 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는데 고구려시기부터 추어 진 것으로 추측된다.

《장고춤》이 뚜렷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농악무가 성행하면서 여기서 장고잡이들의 춤이 한 몫을 크게 보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장고춤》의 춤가락은 장단가락과 밀착되어 있다.

《장고춤》에서 기본은 장단가락을 잘 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장단가락이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고춤》가락도 다양하다.

《장고춤》은 오른손에는 장고채를 들고 왼손에는 궁궐채를 들고 춤춘다. 장고채로는 잔가락을 치며 왼손의 궁궐채로는 북편(궁편)과 채편을 왔다갔다하며 치는 특기를 보여 준다.

『長鼓(창고)의踊り』は、民族打楽器である「창고」が使われた高句麗時代から伝えられた踊りである。

農樂舞が盛んなころ、その一役をかっていた창고手たちの踊りにより引き継がれ、後に独立したものである。

『長鼓(창고)의踊り』は、朝鮮独自のリズムである「창댄」に合わせて打つ動作が基本であり、豊富で多様な「창댄」の数と同じく『長鼓(창고)의踊り』の動作も多様である。

右手に「창고체(細いばち)」を持ち、左手には「쿨글체(棒先に球のついたばち)」を持って踊る『長鼓(창고)의踊り』の見せ場は、高度な「창댄」さばきにある。

『長鼓(창고)의踊り』の基本動作は現在、4種類の動作に整理されている。